

‘일찍 잡길 잘했네’...비FA 다년계약자, 초반부터 ‘펼 펼’

한유섭, 8경기서 타율 0.405 2홈런 15타점
구자욱, 뒤늦게 합류...2경기서 9타수 4안타
김광현, KIA전서 화려한 KBO리그 복귀전

지난 겨울 대형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만 큼이나 화제를 모은 것이 아직 FA 자격을 얻 지 않은 선수들의 다년 계약이다. 지난해 말 이전까지 다년 계약은 FA 선수 만 얻을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각 구단 에 ‘FA가 아닌 선수라도 다년 계약이 가능하 다고 알렸다. 안치홍과 롯데 자이언츠가 맺은 독특한 계 약이 실마리가 됐다. 2019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은 안치홍은 롯데와 2+2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구단과 선수 상호 계약 연장 조항을 삽입했다. 안치홍 측은 지난해 KBO에 “첫 2년이 지 난 뒤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후 또 다른 다년 계약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KBO는 법적 검토를 통해 “어떤 선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 했다. 그러면서 전 구단에 이런 사실을 전달 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를 활용한 것은 SSG 랜더스였다. SSG는 2021시즌이 끝 난 뒤 선발 자원이 박종훈, 문승원과 주축 타 자 한유섭에게 다년 계약을 제시했다.

박종훈과 한유섭은 2022시즌을 마친 뒤에 야 FA 자격을 갖출 예정이었다. 문승원도 등 록일수에 따라 2022시즌이 끝난 뒤 FA로 풀 릴 가능성이 있었다. 박종훈과 문승원이 SSG의 제안을 먼저 받 아들었다. 박종훈은 5년 총액 65억원, 문승원 은 5년 총액 55억원에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유섭도 5년 총액 60억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삼성 라이온즈도 움직였다. 팀 내 간판 타자인 구자욱과 5년 총액 120억원 에 계약, 일찌감치 놀러갔었다. 구자욱 또한 2022시즌 뒤 FA가 될 예정이었으나 통 큰 제 안에 삼성에 남기로 했다. SSG는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돌아온 김광현과 계약하면서도 비FA 다년 계약을 활용했다. 2019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김광현은 국내에서는 FA 신 분이 아니었지만, SSG와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했다. 역대 계약 규모 1위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지난해 5월 팔꿈치 인 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을 받은 박종훈, 문승원은 아직 재활 중이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한유섭. (사진 = SSG 랜더스 제공)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사진 = 삼성 라이온즈 제공)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김광현. (사진 = SSG 랜더스 제공)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시즌 초반 펼 펼 날고 있다. ‘일찍 잡길 잘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SSG 중심타선에 배치되는 한유섭은 올 시즌을 상쾌하게 출발했다. 타율 0.405 2홈런 15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SSG가 개막 8연승을 달리는데 앞장섰다. 8경기에서 OPS(출루율+장타율)가 1.179에 달한다. 타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다. 8타점으로 2위인 강민호(삼성), 김현수(LG 트윈스)에 7 개 차로 앞서있다. 장타율 부문에서는 0.750 으로 김현수(0.844)에 이어 2위다.

컨디션 문제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 지 못했던 구자욱은 지난 9일야 야에 합류 했으나 2경기에서 타율 0.444(9타수 4안타) 로 몰론은 타격감을 뽐냈다. 특히 10일 대구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2 루타 두 방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2타점 1득 점으로 제 몫을 푼듯 했다. 김광현은 ‘역시 김광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김광현은 9일 인천 KIA 타이거즈전에 선 발 등판해 2019년 9월 30일 대전 한화 이글

스전 이후 922일만에 국내 무대 복귀전을 치렀다. 그는 6이닝 동안 1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 만 내주고 KIA 타선을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5회까지는 볼넷과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다. 긴 시즌이 모두 끝나야 성패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즌 초반 비FA 다년 계약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들이 시즌 끝까지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 성공 사례 를 남긴다면 비FA 다년 계약은 더욱 활발해 질 수도 있다.



프로배구 정지석·곽승석·전광인, FA시장 나왔다

오는 25일까지 FA 협상 가능

대한항공의 2년 연속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린 프로배구 남자들의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문을 열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2일 FA 자격 취득 선수 26명을 공시했다. 우승팀 대한항공에서는 정지석, 곽승석(이상 A그룹), 전광인, 김규민(이상 B그룹) 등 4명이 FA로 풀렸다. 최대어는 역시 정지석이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정지석은 국내 최고의 레프트 자원으로 통한다.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굶은이를 도맡아 하는 또 다른 레프트 공격수 곽승석은 누구나 탐낼만한 자원이다. 곽



석은 수준급의 공격과 함께 빼어난 수비 실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캐피탈 레프트 전광인과 센터 최민호(이상 A그룹)도 전력 상성이 보장된 카드들이다. 한국전력 레프트 서재덕과 센터 신영석(이상 A그룹) 역시 좋은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들로 분류된다. 만 44세의 베테랑 리베로 여요현(B그룹)의 현역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 KB손해보험에서는 한성정, 김정호, 정민수(이상 A그룹), 황두현(B그룹)이 FA 자격을 얻었다. 우리카드 주전 센터 하승우(A그룹)는 생애 첫 FA 자격을 행사한다. FA 선수들은 25일 오후 6시까지 KOVO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 따라 7개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뉴스스

K리그,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탈환 도전...15일 출격

울산·전북·대구 출격...전남, K리그2 최초로 출전
K리그, 역대 12차례 우승으로 최다 우승 클럽 배출

오는 15일부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F~J조)가 시작된다. K리그1(1부) 디펜딩챔피언 전북 현대를 비롯해 울산 현대, 대구FC가 나선다. 또 K리그2(2부)의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 자격으로 도전장을 냈다. K리그2 팀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처음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홈앤드어웨이 방식이 아닌 중립지역에 모여서 경기를 치른다. 울산은 말레이시아, 전북은 베트남, 대구와 전남은 태국에서 각각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4개팀씩 한 조에서 경쟁한다. 각 조 상위 2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올해 K리그1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2012년,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왕좌를 탈환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J조에서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 조호르 다룰 탁집(말레이시아), 광저우(중국)와 대결한다. 가와사키는 현재 J1리그에서 1위(6승2무

2패)를 달리고 있다. 울산과 가와사키는 각각 K리그, J리그의 선두팀으로 대결에 큰 관심이 쏠린다. 광저우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리저브 팀으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1 5연패에 빛나는 전북은 최근 리그 3 연승으로 상승세다. 2006년, 2016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정상을 노린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 시드니FC(호주), 호안안인 잘라이(베트남)와 H조에 속했다. 공교롭게 요코하마와 시드니는 2020년 조별 리그에서도 경쟁했던 상대팀이다. 전북은 당시 시드니를 상대로 1승1무, 요코하마에 2패를 당했다. 요코하마는 지난해 J1리그 준우승을 차지해 본선으로 직행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해에 도 리그 2위(6승3무2패)에 올라있다. 요코하마의 강점은 매서운 공격력이다. 17 골로 18개 구단 중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18년 FC서울 소속으로 30경기에서 6골 4도움을 올렸던 안철순이 리그 10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이끈다.

대구는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를 꺾고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다. 지난해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대구는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F조에서 산둥 타이산(중국), 라이언 시티(싱가포르), 우리와 레드(일본)를 상대한다. 산둥은 광저우와 마찬가지로 리저브팀이 출전할 예정이다. 라이언 시티는 지난해 싱가포르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다. 김도훈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있어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우리와 레드는 지난해 일왕배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했다. K리그2 최초로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장을 낸 전남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아시아 무대를 밟는다. 구단 역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린다. G조에서 유나이티드 시티(필리핀), BG빠툼 유나이티드(태국), 멜버른 시티(호주)를 차례로 만난다. K리그는 1967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 우승팀을 배출했다. AFC 가맹국 리그 중 우승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2020년 울산(우승), 2021년 포항(준우승)이 2년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기도 했다.

뉴스스

한국전력 럭비팀, ‘압도적 경기력’ 1차 대회 우승

ok 코리아 슈퍼럭비리그 3전 전승...사상 첫 유료입장 700여명 관중

한국전력 럭비팀이 “2022 ok코리아 슈퍼럭비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1차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한국전력 럭비팀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된 ‘2022 ok코리아 슈퍼럭비리그 1차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럭비팀은 “2022 ok코리아 슈퍼럭비리그(15인제)”에서 지난 3월 26일 포스코건설과 경기에서 17:14로 승, 2일 국군체육부대와 맞붙어 64:17로 대승, 1차대회 마지막 경기인 9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전용구장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경기에서 51:20으로 압도



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전력은 4개 팀이 참여한 일 반부 경기에서 3전 3승, 전승을 거두며 1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동환 한국전력 감독은 “힘든 동계훈련을 묵묵히 버티고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남은 2차 대회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성 ‘빛났던 준족’ 나왔다 하면 득점 ‘활약’

샌프란시스코 원정 빠른 발로 내야안타 만들고 진루 및 득점

타격 슬럼프는 있어도 빠른 발은 꾸준하다는 말이 있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호타’를 선보이진 못했지만 자신의 ‘준족’으로 존재감을 알렸다. 김하성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를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원정경기에서 유격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00에서 0.222로 약간 올라갔다. 김하성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을 때도 호타준족으로 명성을 날렸다. 데뷔 시즌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두자리 홈런을 기록했다. 또 김하성은 4개였던 2014년과 8개였던 2018년을 제외한 다섯 시즌에서 두자리 도루를 기록했다. KBO리그에서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0년

에 30홈런과 23도루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MLB에서도 빠른 발만큼은 여전하다. 지난해 54개의 안타와 22개의 볼넷만 얻어 냈지만 6개의 도루를 성공시켰다. 올 시즌에도 벌써 도루 1개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서도 빠른 발로 3루타를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도 김하성은 빠른 발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렸다. 김하성은 3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첫 타석에서는 주심의 일관성 없는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공 3개로 삼진을 당했고 6회초 2사 만루에서 들어선 두 번째 타석은 추구를 공략했다가 2루수 뜬 공으로 몰락했지만 세 번째 타석은 달랐다. 2-2로 팽팽하게 맞선 7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유격수 앞 땅볼을 쳤지만 빠른 발로 1루에서 살면서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트랜트 그리섬의 안타로 2루까지 진출한 김하성은 오스틴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유격수 김하성(가운데)이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022 MLB 원정경기 6회말 수비 때 1루 주자 브랜트 크로포드(오른쪽)를 아웃시킨 뒤 1루로 공을 던지고 있다. 놀라의 우익수 파울 플라이 때 자신의 빠른 발로 3루까지 갔다. 이어진 1사 1, 3루 기회에서 매니 마차도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으로 파고 들었고 상대 투수가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는데 그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다. 김하성은 자신의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고 3루까지 진출하면서 결국 내야 땅볼로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